

소외계층 '힐링' 무대 열려

범어사, 생명존중 콘서트 개최
10월 27일 벅스코에서



2012 생명존중콘서트 리허설 장면

부산 범어사(주지 수불)는 10월 27일 부산 벅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생명존중 행복나눔'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생명존중, 행복나눔 중국 장애인 예술단 초청 공연 '는 부산 범어사가 주최하고 부산시 불교 연합회, 부산 조계종 연합회, 불교여성개발원 등이 후원한다.

행사에서 펼쳐질 공연은 유네스코 지정 문화재인 '천수천안관음무'다. 천수천안관음무는 천수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를 기리며 인간의 고(苦)에 대한 성찰과 승화를 나타낸 것이다.

천수천안관음무는 지난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SBS 스타킹을 통해 처음 소개돼 많은 관심을 끌었다.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은 "소외계층을 돕고 국민 모두가 함께 하는 따뜻하고 훈훈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과 뜻 깊은 시간을 공유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행사의 수익금 전액은 복지기관 및 저소득층 이웃들의 기금으로 쓰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의 기획을 맡은 장승익 몸웍스 대표는 "공연에서 선보이게 될 천수천안관음무는 유네스코 공식 지정 문화재로서 종교를 떠나 누구나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훌륭한 공연이다"며 "이번 행사가 많은 사람들이 즐거운 시간을 갖고 심신을 정화시키는 힐링타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천수천안관음무뿐만 아니라 중국 장애인 예술단이 펼치는 음악, 연극, 오페라 등 5개의 추가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051)508-3122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통일을 위해 법음을 울리다"

불교총지중 창종 40주년 맞아
10월 6일, 제2회 통일음악예술제

'사회화합과 계층간 융화의 한마당'을 주제로 불교음악을 통한 지역 주민화합의 장이 마련된다.

불교총지중(총리원장 지성 정사)은 창종 40주년을 맞아 10월 6일 부산 동해중학교에서 통일음악예술제를 개최한다.

제2회 통일음악예술제는 지역주민과 소외된 계층과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한 총지중의 두 번째 행사로 총지중 전국연합합창단의 찬불가 공연과 인기가수들의 축하공연 등이 진행된다.

이날 행사는 불교총지중 마니합창단, 금강합창



지난 2011년 열린 제1회 통일음악예술제 모습. 이번 예술제에는 2000명의 관객이 통일음악을 감상할 예정이다.

단, 만다라합창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서 범 불교계가 동참할 예정이다.

기존 불교 행사가 산사에서 이루어지는 공연 위주 행사였던데 비해 이번 행사는 도심 한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동참할 수 있도록 마련된다. 참가예정인원은 합창단 및 공연단 200명, 관객

2,000명이다.

한편, 불교총지중은 창종 이후 모든 불공에 '나라의 안녕과 조국평화통일'을 염원하는 공공서원을 제정하고, 지속적으로 불공을 올리고 있다. (051)508-8933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큰스님 모신 백고좌대법회 개최

법왕사서 7일부터 100일간 열려

대구 법왕사(주지 실상)는 100명의 고승들을 초청해 법문을 듣는 '백고좌대법회(百高座大法會)'를 9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 100일간 매일 오전 11시 30분 법왕사 대법당에서 봉행한다.

이번 대법회는 조계종 원로의원인 도문 스님,

동국대 불교학술원장 겸 동국역경원장인 인환 스님 등 고승들이 경율론(經律論) 삼장(三藏)의 세계에 대한 법문을 펼친다. 법회 99일째인 12월 14일에는 해인사 울주인 종진 스님이 수계법회를 집전한다.

이에 앞서 6일 법왕사 복지관 3층 대법당에서는 70년대의 인기가수 김태곤을 초청한 산사음악

회가 열려 참가대중의 큰 호응을 받았다.

백고좌대법회는 나라의 평안과 백성의 고통을 구제하자는 취지에서 100일 동안 매일 한 분씩 100분의 큰스님을 모셔 설법해 하는 법회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진평왕 대에 황룡사에 백고좌를 차리고 원광 법사 등을 맞아들어 설법한 것이 처음이다.

그러나 송유역불(崇儒抑佛) 정책으로 조선시대 이후 중단됐다가 법왕사에서 지난 1994년 최초로 부활시켜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동체대비 상생문화 위해 인재 양성 나섰다

조계종 부산연합회, 동명대에 1억 2000만 원 기부

조계종 부산연합회(회장 수진, 해인정사 주지)는 9월 6일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이사장 서의택)에 학교발전기금 1억 2000만 원을 전달했다.

최근 동명대 석좌교수에 위촉된 수진 스님은 또 석좌교수 급여 전액을 향후 1년간 동명대 발전기금으로 기부기로 했다.

이날 조계종 부산연합회는 동체대비(同體大悲)의

상생문화 고취 등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앞장서기 위해 동명대와 중·학 협정을 체결했다.

중학협정을 통해 두 기관은 ▷불교문화 진흥을 위한 인력양성 및 중학협력 공동연구 ▷재가불자 대상의 각종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역문화·예술활동 진흥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 공동참여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망자의 물건을 태우는 소대는 불교적 의미를 담고 있지만 최근 쓰레기 소각로로 오용되고 있다. 충남 자사찰

'소대'는 쓰레기 소각로가 아니다

사찰에는 오래전부터 소대(燒臺)라고 이름 붙여진 소각로가 있어왔다. 이곳에서는 재를 지낸 다음에 망자나 망자가 소지했던 물건 혹은 옷가지 등을 태우게 된다. 우리나라 사찰의 경우 아름다운 굴뚝이 많았던 것에 비해 이 소대는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았는지 전에는 대충 기와를 돌려놓기도 하고 아예 소각로를 만들지 않고 땅바닥에서 물건을 태우기도 하였다. 그나마 소대의 기능이 한정적이었고 절에서도 그러한 기능 이외에는 사용을 하지 않아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소대의 기능이 쓰레기소각로로 변질되고 있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사찰의 신도수가 늘어나고 버려지는 물건이 많은 탓인지 가뭇 갈수록 쓰레기의 양이 많아지고 이것을 쉽게 반출하지 못하다 보니 소대에서 생활쓰레기까지 태우게 된 것이다. 생활쓰레기를 태우는 것은 불법이기도 하지만 법을 따지기 이전에 화재의 위험이 높아지게 되고, 대기오염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냄새가 진동하여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건강한 환경을 지켜내야 할 사찰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요즘은 사찰에 가면 아름답기도 하지만 불교적 상징성을 담고 있는 소대를 쉽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소대 하나를 만들면서도 디자인에 신경을 쓰는 사찰은 소대를 쓰레기소각로로 오용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디자인을 알 정도의 안목을 가진 스님이라면 화재의 위험이나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속담이 괜히 생겼을 리가 없다.

그러나 아직도 소대를 물건이나 태우는 혐오시설로 생각해서 아무렇게나 만들거나 청정하지 못하게 관리하는 사찰이 있다. 녹슨 드럼통에서 위패를 태우거나 망자가 애지중지 했던 물건들을 태우는 것은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이곳에서 생활쓰레기까지 태운다면 이것은 불자들이 할 일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불교인들은 살아있는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고, 여법하게 행동하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생활을 한다. 소대 하나를 만들면서도 정성스럽고 아름다운 마음을 낸다면 그것은 결코 잘못된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壬辰年은 龍의 해입니다.
해동용궁사에 오셔서 소원성취하십시오.

한 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 051) 722-7755